

이라크 전후 복구, 건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미국·영국 업체와의 제휴 여부에 좌우, 복구 사업 효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듯 -

미국·이라크 전쟁은 개전이 선언된 2003년 3월 19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종전 선언의 문턱에 도달하였다. 예상대로 전쟁이 단기간 내에 종결됨에 따라 종전 이후의 경제적·외교적 파급 효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전 후 대체적인 상승세

우리나라도 정부, 재계와 국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사가 주가 지수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개전 후 한 달째인 4월 18일까지 주식시장은 전쟁에 따라 다소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상승 대세를 이어오고 있다. 초기 종전이 가시화된 4월 초부터는 주가가 탄력을 받아 종합주가지수(KOSPI)는 600선을 회복하였다.

현재까지의 상승 장세를 선도하며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업종은 단연 건설업종이다. 개전일 당시 43.94였던 건설업종 지수가 4월 18일에는 68.1로 같은 기간 동안 37.3% 상승하였다. 15.3% 상승한 종합 주가 지수에 비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건설업종이 시장 선두주로 부각되었다.

전후 복구와 건설 주가

앞으로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건설업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이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조심스럽게 피력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둔화 예상에 따른 경기 부양 가능성,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서 건설업종 주가와 종합 주가 지수가 1년 이상 약세를 면치 못하였던 경험에 기초해, 이번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에서도 우리나라가 거둬 이득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먼저, 걸프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걸프전의 단초가 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1990년 8월 2일에 일어났고 그 이후 주가는 유가 상승에 의해 하락세를 보였다. 유엔안보 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강점에 대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즉각 철수안을 결의하였으며 철수 시한은 1991년 1월 15일로 결정되었다. 시한을 이틀 넘긴 1월 17일 미국 등 연합군은 공중 폭격을 감행, 이라크의 주요 시설을 거의 파괴하였다. 2월 24일에는 전면 지상 작전을 전개하여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한 뒤 지상전 개시 10시간 만인 2월 28일 걸프전 전쟁 종식을 선언했다.

연합군의 공격 개시일부터 전쟁 종식 선언까지 약 40일 동안 건설업종 주가는 389.16에서 441.26으로 13.4% 상승하였고 종합 주가 지수는 641.42에서 675.57로 5.3% 상승하였다. 걸프전 시작 전 유가 상승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제약, 음식료 등 경기 방어적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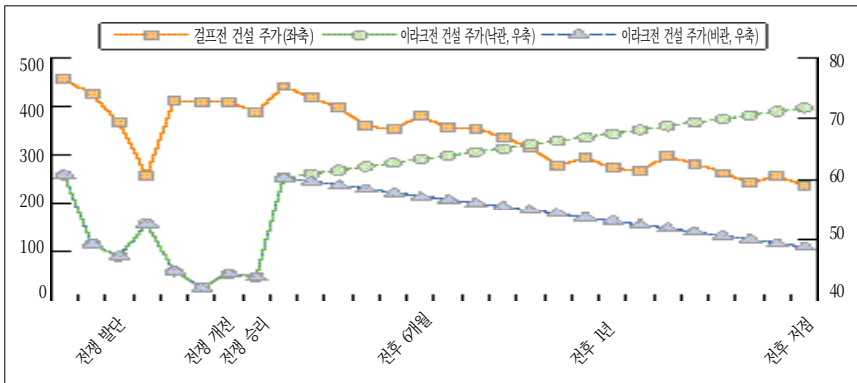
나 금융, 건설, 운수 창고, 반도체, 전기 부품 등의 종목은 하락폭은 컸다. 그리고 개전 이후부터 전쟁 종료까지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는 하락폭이 컸던 순으로 금융, 건설, 운수 장비 등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건설업종 지수는 걸프전 이후 중동 지역에서 '제 2 중동 특수'가 기대되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국내 건설업체들이 걸프전 후 쿠웨이트 복구 사업에서 거둔 해외 수주는 840만 달러에 그쳤다. 그러면서 종전 직후부터 하락세를 보인 건설업종 주가는 6개월 후에는 종전일 대비 19.2% 하락하였고 1년 후에는 38% 1년 7개월 후인 1992년 9월에는 46% 하락하여 주가 지수가 237.76으로 곤두박질쳤다. 종합 주가 지수도 하락하였지만 하락폭은 종전일 대비 23% 하락에 그쳐 상대적으로 건설업종 주가의 하락이 극심하였다.

기대만큼이나 어려움도 예상

미국·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과 관련한 건설업종 주가의 상승 낙관론의 배경은 크게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국내 요인은 이라크전과 직접적 관련은 많지 않으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요소들이다. 우선 1991년 걸프전 당시의 건설업종 주가는 신도시 개발, 주택 20만호 사업 등으로 40%에 근접할 정도로 고평가되고 있었지만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과 건설 증가 전망



지금의 건설업종 주가는 당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건설업 자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어 있어서 하락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대로 낮아지면서 경기 부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건설 경기는 당분간 유지되며 건설업종 주가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해외 요인으로는 먼저 걸프전에 비해 이번 전쟁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전후 복구에 대한 투자 규모가 1,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라크 전역에 걸쳐 공항, 도로, 통신, 유전 등 피해가 막대하므로 걸프전에 비해 사업 규모가 5배나 되고 사업 종류도 다양해 국내 기업들의 수주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걸프전에 비해 특이한 점은 걸프전에는 3개국만 다국적군으로 참여하였지만 이번 이라크전에는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이 반전국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유엔이 중심이 된 전후 복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반전국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다. 대신 영국, 일본, 호주, 우리나라 등 파병국 내지는 지원국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와 해외 건설시장에서 시공 부문에서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 중국이 반전국에 포함되고 최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게는 반사 이익으

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견해 또한 적지 않다. 걸프전 후 쿠웨이트 복구 사업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주한 실적을 보면, 전체 공사액의 0.043%에 불과하였다. 미국 업체들의 독식과 공사의 주종을 이룬 석유 화학 플랜트 공사 수행 능력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부정적 견해의 핵심이다. 미국 업체들의 독식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 업체들의 수주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우리 건설업체들의 플랜트 공사 수행 능력은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 상대인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서는 뒤지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업체끼리도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독자적으로 공사를 따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독자적인 수주 전략보다는 미국, 영국 업체와의 업무 제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를 따내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적 제휴가 주요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미국 백텔, 플루어다니엘 등과의 사업 공동 참여 방안을 협의 중이고 바그다드 지사에 인력을 충원하였다. 대우건설도 미국, 영국 기업과 접촉 중이며 하수도 시설, 석유 화학 플랜트, 병원 등 대형 공공 시설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SK건설, 대림산업 등도 특별팀을 구성하여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업체들의 경쟁국인 일본 업체들은 국내 경기의 오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만회해볼 기회로 여기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일본 업체들도 걸프전 전후 복구 사업의 대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독차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이라크 새정부 출범 이후까지를 내다보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보력이 뛰어난 종합상사와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상황에 민감히 대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이라크전 전후 복구 사업이 건설업종 주가에 미칠 영향은 국내 기업들의 미국 및 영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성과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초기 복구 사업인 교량, 도로 같은 토목 공사에서는 비싼 인건비 때문에 국내 업체가 차지할 수 있는 물량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3년 뒤부터 쏟아질 석유·가스 플랜트 공사 수주가 기다리고 있어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의 효과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라크 전쟁 때문에 유보했던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계속 발주할 전망이다. 오호려 이들 사업에 대한 진출 여부가 제 2 중동 특수 물 판가름할 요소이며 건설업종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성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sjbaek@cerik.re.kr